충의공 권응수權應銖 장군 공신교서

• 편집자 주

‘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가 사단법인으로 공식 발족되고 거기에 충의공忠毅公 백운재白雲齋 권응수權應銖(복야공파 서주공계 시조후 23세) 장군의 후손 문중이 등기이사 등으로 참여함에 따라 충의공의 임란 공적이 학술적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여기에 번역 소개하는 충의공의 ‘ 공신 교서 功臣敎書 ’는 실록實錄이나 어느 사서史書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다른 집안에도 당시에 받은 것으로서 이같은 교서의 원본이 세전되고 있는 바가 별로 없다. 이 교서의 사료적 가치가 높고, 특히나 충의공의 영천永川 복성復城 전공에 관해서는 선조宣祖의 어사御賜 교서로서 그 실상이 극명히 묘사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충의공의 ‘ 영천복성비 ’가, 아직도 그 공적이 잘못 평가절하되어 제자리에 복원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을 알게 된다.

敎
교

效忠仗義協力宣武功臣資憲大夫花山君權應銖書효충장의협력선무공신자헌대부화산군권응수서

王若曰忘身徇國忠烈克彰於危時定功行封褒崇豈限於彝典왕약왈망신순국충렬극창어위시정공행봉포숭기한어이전肆待十年之久庸示一朝之?사대십년지구용시일조지수惟卿兼閱韜鈐餘事弓馬身都趙雲之膽拳勇無雙貌如許遠之心骨相異衆유경겸열도금여사궁마신도조운지담권용무쌍모여허원지심골상이중夙揚名於桂籍旋晦迹於?鄕숙양명어계적선회적어분향屬巨寇之?張倡大義而鳩旅촉거구지치장창대의이구려初非職守之有係抑豈功利之是求초비직수지유계억기공리지시구丹心所存曒然猶日赤手而起從者如雲단심소존돈연유일적수이기종자여운扼關嶺之咽喉幾多?殺零賊액관령지인후기다초살영적蕩凶醜之巢屈誓欲收復全城탕흉추지소굴서욕수복전성惟永川之地方號南藩之天府유영천지지방호남번지천부蜂屯蟻雜賊雖據於形便봉둔의잡적수거어형편電邁風驅卿獨奮於?戰身輕一鳥冒刃先登勇敵萬夫?瘡直進一擧而堅城?倒전매풍구경독분어오전신경일조모인선등용적만부과창직진일거이견성척도難掩耳於疾雷千?之狡?哀鳴競投身於烈火난엄이어질뢰천군지교얼애명경투신어열화勢若破竹力易?枯兵前之草木세약파죽역이최고병전지초목知威境上之壁壘垂廓지위경상지벽루수곽念是役之專勝誠未有之殊勳玉佩金章염시역지전승성미유지수훈옥패금장竄幽藪之不暇殘兵破甲掃勅敵而有餘찬유수지불가잔병파갑소경적이유여賴卿敵愾之忠副予除凶之志뇌경적개지충부여제흉지지衣裳在?恩合?於懋功刻印不頒賞豈吝於封爵의상재사은합패어무공각인불반상기인어봉작肆策勳爲宣武二等功臣圖形垂後사책훈위선무이등공신도형수후超二階爵其父母妻子亦超二階초이계작기부모처자역초이계無子則甥姪女壻超一階무자즉생질여서초일계嫡長世襲不失其祿宥及永世적장세습부실기록유급영세仍賜伴?六人奴婢九口丘史四名잉사반당육인노비구구구사사명田八十結銀子七兩表裏一段內廐馬一匹전팔십결은자칠냥표리일단내구마일필至可領也지가령야於戱指山河而爲誓오희지산하이위서勳業旣煥於凌煙훈업기환어능연與國家而同休여국가이동휴忠貞益篤於異日故玆敎示想宜知悉충정익독어이일고자교시상의지실

一等일등
李舜臣이순신
權慄권율
元均원균
二等이등
申點신점
權應銖권응수
金時敏김시민
李廷?이정암
李億祺이억기
三等삼등
鄭期遠정기원
權?권협
柳思瑗유사원
高彦伯고언백
李光岳이광악
趙儆조경
權俊권준
李純信이순신
奇孝謹기효근
李雲龍이운룡

萬曆三十二年十月 日만력삼십이년시월 일

효충장의협력선무공신效忠仗義協力宣武功臣 자헌대부資憲大夫 화산군花山君 권응수權應銖에게 내리는 교서敎書

왕이 이같이 이르노라. 몸을 잊고 나라를 좇아 위급한 때에 능히 충렬忠烈이 드러났으니 공훈을 정하여 책봉策封하고 포숭褒崇함에 있어 어찌 평상의 전범典範에만 한정되어 매이리오. 이에 10년을 오래 기다린 나머지 하루아침에 그 보답을 보이나니, 오로지 경卿은 겸하여 병학兵學에 달達하고 무예武藝를 여사餘事로 삼았거니와, 몸은 조운趙雲(중국 삼국시대 촉蜀의 명장 조자룡趙子龍)의 담력에 손의 날램이 무쌍하고 몸은 허원許遠(당唐 현종玄宗 시의 무장)의 마음에 뭇사람과 다른 골상骨相으로 일찍이 계적桂籍(과거 급제자 방목榜目)에 이름을 드날렸으나 문득 고향에 자취를 감추었더니, 거창한 도적이 크게 활개를 펼치고 창궐하므로 대의를 불러 의려義旅를 모으되 처음부터 직책을 지켜 행한 바는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어찌 사사로운 공리功利를 추구하는 바였으리오. 일편단심一片丹心을 지닌 바가 해와 같이 밝아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일어남에도 따르는 자가 구름과 같으니 관령關嶺의 인후咽喉를 눌러 얼마나 많은 적을 영패零敗시켜 초살?殺하였으며, 흉추凶醜의 소굴을 소탕하였는가. 전성全城을 수복하고자 서맹誓盟함에 오로지 영천永川 땅은 바야흐로 영남嶺南의 울타리로서 천부天府라 호칭하는 곳이요, 적이 벌떼와 개미 같이 엉겨 지형의 편의에 의지해 웅거하되, 번개 같이 달리고 바람처럼 몰아쳐 경이 홀로 오전?戰으로 발분하며 몸이 한 마리 새 같이 가볍게 칼날을 무릅쓰고 먼저 성가퀴에 올라 날래게 만부萬夫를 당하며 창상創傷을 싸매고 직진하여서는 일거에 견고한 성을 차 넘어뜨리니, 질풍疾風과 우뢰雨雷에 눈귀를 가리지 못하는 교얼狡?의 무리 애처러이 울며 다투어 매서운 불길에 몸을 던지매 형세는 마치 파죽破竹이요 힘쓰기 수월함은 고목을 부러뜨리기와 같아, 병기 앞에 초목도 그 맹위猛威를 알고 지경에 있는 성채와 보루堡壘도 드리워 비우며 맞이하였도다. 이같은 전역戰役에 전일專一히 승첩한 것을 생각할 때 이는 진실로 전고前古에 없던 수훈殊勳이어니와, 옥패玉佩의 현관顯官과 금장金章의 문한文翰은 깊고 그윽한 둥지로 달아나 숨기에 여가가 없는데도 남은 병장기와 찢어진 갑옷으로 굳센 적을 소탕하고 남았으니, 경의 적개지충敵愾之忠에 힘입은 바가 나의 흉얼凶?을 제거하려는 뜻에 부응하였도다. 은급恩給의 의상衣裳이 상자에 있어 혁혁한 공훈에 혜사惠賜를 패연?然히 함이 합당하거늘 이를 각인刻印하고 포상褒賞하여 반포頒布치 아니하고 어찌 작위爵位를 봉함을 아낄 것인가. 이에 선무2등공신宣武二等功臣에 책훈하고 그 형상形象을 그려 후세에 드리우며 작계爵階를 두번 초승超陞하고, 그 부모와 처자妻子 또한 두 작계를 초승하되 자식이 없으면 생질甥姪과 사위를 한 작계 올리며 적장嫡長(의자와 손 · 후손)이 세습世襲하되 그 봉록俸祿을 잃음이 없고 그 죄를 유사宥赦함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하노라. 인하여 반당伴?(사환) 6인, 노비奴婢 9구口, 구사丘史(관급노비官給奴婢) 4명, 전답 80결結, 은자銀子 7냥兩, 표리表裏(정복과 외투) 1단段(각 한벌 감) 및 내구마內廐馬(왕실 목마牧馬) 1필匹을 내리나니 이르거든 수령할지어다. 아아, 산하山河를 가리켜 맹서盟誓하거니와 그 훈업勳業이 이미 능연각凌烟閣(당 태종太宗의 개국공신 화상전각)에 빛나 국가와 더불어 아름다움을 한가지로 하매 충정忠貞이 다른 날에 더욱 도타울 것이므로 이와 같이 교시敎示하나니 마땅히 잘 헤아려 알 것으로 생각하노라.

만력萬曆(명 신종神宗 연호) 32년(선조宣祖 37년, 1604) 10월 일

복야공파 화봉단소 3대 추향

평리공 · 문탄공 · 종정공 3위

경북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송라동松蘿洞 화봉산花峰山에 있는 복야공파僕射公派 시조후 12세 평리공 이하 3대 화봉단소花峰壇所의 경인년 추계 향사가 11월 7일, 음력 10월 2일 정일定日 오후 2시에 봉행되었다. 이날은 안동시 서후면 교리에 있는 선대 복야공의 향사일과 정일이 같은 날로 정해져 있어 제관들이 오전에 안동에서 선대 복야공의 향사를 봉행하고 오후에 이곳 단소로 이동하여 향사를 지냈는데, 후손은 모두 60여명이 참제하였다.

화봉단소에는 복야공의 손자 고려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첨의평리僉議評理 휘 책 , 그 장남 삼한벽상삼중대광三韓壁上三重大匡 도첨의우정승都僉議右政丞 예천부원군醴泉府院君 문탄공文坦公 일재一齋 휘 한공漢功, 그 장손 정순대부正順大夫 판종정시사判宗正寺事 종정공宗正公 휘 사종嗣宗 3위가 설단되어 있다.

이날 행례에서는 제단의 상석에 3위의 제물을 합설合設하여 봉행하였다. 각 집사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초헌관初獻官 : 권종현權宗鉉
아헌관亞獻官 : 권기덕權奇德
종헌관終獻官 : 권도연權度延
독축讀祝 : 권문수權文洙
찬자贊者 : 권동술權東述
진설陳設 : 권수명權洙命、권오철權五哲、권영국權寧國、권영욱權寧旭、권혁도權赫道
봉향奉香 : 권수덕權洙德、권순무權純武、권영인權寧寅
봉로奉爐 : 권영복權寧福、권영업權寧業、권오석權五錫

향례를 마치고는 단소 전정前庭에서 권영옥權寧沃 종회총무의 인사말과 현황 보고를 청취하였다. 이어 이날의 제수 헌성금 납부자가 소개되고 음복飮福을 행하였다.

<사진 · 취재 權甲鉉>

▲화봉단소의 최존위 평리공 단소에서 향례가 봉행되고 있다.